

‘아시아의 태풍’... 광주FC, 16강 진출 ‘청신호’

조호르 3-1 격파... 개막 3연승
東亞 리그 스테이지 선두 수성
아사니, 3경기서 6득점 맹활약
이정호 “항상 과정에 집중해야”



창단 처음으로 도전하는 아시아 무대에서 광주 FC가 돌풍을 넘어 태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정호 감독이 추구하는 주도권 축구를 바탕으로 일본의 요코하마 F. 마린노스와 가와사키 프론타레에 이어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다룰 탁짐 FC까지 연파하며 리그 스테이지 통과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광주는 지난 22일 경기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조호르와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3차전에서 3-1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3전 전승(승점 9)을 질주하며 단독 선두를 수성했다.

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는 12개 구단이 참가해 홈 4경기와 원정 4경기씩 모두 8경기를 치른 뒤 상위 8개 구단에 16강 티켓이 주어진다. 16강 진출 확률이 66.7%에 이르는 만큼 광주는 남은 다섯 경기에서 전패하더라도 최소 8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6강이 리그 스테이지 1위와 8위, 2위와 7위, 3위와 6위, 4위와 5위의 맞대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22일 경기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조호르 다룰 탁짐 FC와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3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결로 진행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승점을 확보해야 수월한 대진을 확보할 수 있다.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16강에서 승리할 경우 동아시아와 서아시아가 합쳐지는 파이널 스테이지(8강·준결승·결승)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한다. 태풍의 중심에는 아시아 무대에서 ‘크

랙’(경기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선수)으로 자리매김한 자시르 아사니가 있다. 아사니는 이번 ACLE 리그 스테이지 세 경기에서 여섯 골을 몰아치며 득점 랭킹 단독 선두에 올라 있다. 경기당 평균 2.0 득점의 엄청난 공격력이다.

요코하마전에서 해트트릭과 1어시스

트, 가와사키전에서 선제골 겸 결승골을 터트린 아사니는 이번 조호르전에서도 경기 시작 5분 만에 멀티골을 몰아치며 광주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데 독특한 역할을 해냈다.

광주를 이끄는 이정호 감독 특유의 ‘주도권 축구’도 아시아 무대에서 위력을 발

휘하고 있다. 이 감독은 어떤 팀을 상대로든 침착한 빌드업과 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를 점유하는 주도권 축구를 선수들에게 요구했다.

이번 조호르전에서도 주도권 축구의 진면목이 보였다. 광주는 전반 5분 만에 두 점 차 리드를 잡으며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지만 이 감독은 수비 위주의 지키는 운영 방식 대신 끊임없이 추가 득점을 노리는 공격적인 운영을 택했다.

이 감독은 전반 26분 코너킥 상황에서 페로즈 바하루딘에게 만회골을 내준 뒤 2-1로 앞선 후반 36분 터치라인을 벗어난 공을 바닥에 내던지며 선수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호르의 공격을 차단한 선수들이 공을 갖고 빌드업을 시도하는 대신 길게 차내며 다시 소유권을 내줬기 때문이다.

이 감독은 이날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냉정한 평가를 남겼다. 이 감독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다”며 “아사니 쪽으로 공격하기로 했고 자유로운 장면이 많았는데 많이 연결되지 않았다. 항상 과정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두 골차 리드에서 결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축구는 만들어가는 축구인데 선수들이 체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롱볼 위주의 플레이를 했다”며 “제발 우리가 준비한 축구를 하자고 말했다”고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페퍼저축은행 이원정, V-리그 그린카드 1호 주인공 등극

한국도로공사전 2세트 중
주심 오판에 터치아웃 인정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의 주전 세터를 책임지고 있는 이원정(사진)이 올 시즌 V-리그에 새로 도입된 그린카드의 첫 주인공이 됐다. 페퍼저축은행은 컵대회에서 그린카드를 받았던 아웃사이드 이에림에 이어 다시 한번 양심선언의 첫 주인공을 배출했다.

페퍼저축은행 이원정은 지난 22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1차전(개막전)에서 그린카드를 받았다.

그린카드는 주심 또는 팀의 비디오 판독 요청 시 시그널 전에 선수가 먼저 손을 들어 표시하는 등 오심을 인정하면 받게 된다. KOVO는 올 시즌부터 페어플레이 상 선정 기준에 그린카드 점수를 30% 비율로 반영한다.

앞서한국배구연맹(KOVO)은 올 시즌을 앞두고 페어플레이의 가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판독 시간 단축을 위해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V-리그에 앞서서는 이탈리아 슈퍼레가와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파이널 라운드 등에서 시행됐다.

그린카드 제도가 시범 운영된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에서는 페퍼저축은행 이에림이 첫 주인공이 됐다. 이에림은 GS칼텍스 서울Kixx와 조별리그 3차전 1세트 11-7에서 스테파니 와일러의 백어택에 주심이 아웃 판정을 내려 이영



택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이 나오자 손을 들고 터치아웃을 인정하며 그린카드를 받았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날 이원정이 그린카드를 받으면서 그린카드 제도가 정식 운영되는 V-리그에서도 첫 주인공을 배출했다. 이원정은 2세트 3-3에서 강소희의 킥오픈에 주심이 아웃 판정을 내리자 손을 들어 터치아웃임을 인정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은 이날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에 3-0(25-17, 25-22, 25-14)으로 셋아웃 승리를 거두며 양심선언에 의미를 더했다. 페퍼저축은행이 개막전에서 승리를 챙긴 것은 2019년 창단 이후 네 시즌 만에 처음이다. **한규빈 기자**



23일 2024-2025 핸드볼 H리그 신인드래프트 여자부에서 광주도시공사에 지명받은 조연서(왼쪽)와 연지현(왼쪽 두번째), 김지선(오른쪽 첫번째)이 오세일 감독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한국체대 피벗 연지현 1라운드 지명

핸드볼 H리그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김지선·3라운드 조연서

광주도시공사 여자실업핸드볼팀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신인드래프트 여자부에서 한국체대 연지현(피벗)을 1라운드에 지명했다.

광주도시공사는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핸드볼 H리그 신인드래프트’ 여자부에서 전체 3순위 지명권을 획득해 1라운드에서 한국체대 연지현을 뽑았다. 또 2라운드에서는 일신여고 김지선(센터백)을, 3라운드에서는 인천비즈니스고조연서(라이트백)를 각각 지명했다.

연지현은 한국 주니어 대표팀, 대학핸드볼 통합리그 최우수선수로 뽑히는 등

팀에 부족한 PV(피벗)포지션에 팀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지현은 “제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팀과 동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더 나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해 기대에 부응하는 선수가 되겠다”면서 “광주도시공사에서 수비에 중점을 주고 수비로 최선을 다해 광주에 우승 안겨드리고 싶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지선은 제103회와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2023-2024 U18 청소년대표팀에서 활약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조연서는 같은 포지션 대비 좋은 신체 조건(167cm·62kg)을 바탕으로 올해 태백산기, 협회장배, 중별선수권대회, 제105

회 전국체전까지 팀 우승에 일조하는 등 성장가능성이 높아 뽑혔다.

세 선수는 오는 29~30일 2일간 용인 SK아카데미에서 한국핸드볼연맹 주관의 드래프트 선발 신인 대상 교육에 참석해 신인 실업선수로서 갖춰야 할 각종 교육을 받는다. 이후 2024-2025 H리그 출전을 위해 팀 합동훈련에 들어가 새팀에 적응하고 팀원들과 팀워크를 맞추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명한 세 선수는 광주도시공사 팀에 꼭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이다”며 “특히 연지현 선수는 연령별 대표팀에서 매년 활약하였으며, 우리팀에 세대교체가 필요한 포지션으로 많은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